

공공기관 이전에 접어진 혁신도시...서비스업 활발해졌다

2015년 이후 음식숙박 50%·부동산업 60%↑...제조·건설은 하락세
 나주 인구 7500명 늘어...서비스업 위주 취업자수도 증가세
 젊은층 유입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14년 25%→2018년 22%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초기인 2013~2014년에는 제조업·건설업 생산이 활발했고,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2015년 이후에는 도소매, 음식·숙박업, 부동산업 등 서비스업 생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에는 나주시민이 7500명 늘어 전남 인구가 2010년 이후 최초로 증가 전환했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김대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과장이 펴낸 조사연구보고서 '지역경제의 특징 및 발전 과제'에 담겼다.

김 과장은 산업별 생산과 인구증감, 취업자 수 등 지표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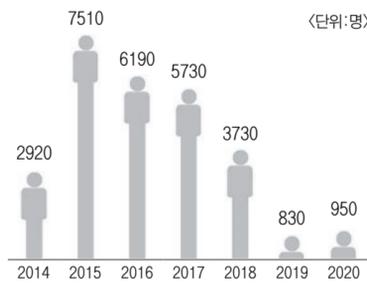
나주 혁신도시는 지난 2007년 착공한 뒤 지난 2013년 7월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시작으로 2014년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이전했다.

김대은 과장은 보고서에서 "한전 등 16개 기관이 나주 혁신도시에 이전됨에 따라 산업생산이 증가하고 인구 및 고용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주 혁신도시는 조성 초기에는 제조업·건설업, 조성 뒤에는 서비스업 위주 생산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혁신도시 이전이 본격화한 지난 2014년 나주시 제조업 생산액은 전년보다 19.6% 급증했다.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저조했던 2012년(5.1%), 2013년(-

■ 혁신도시 이전 본격화 이후 나주 인구증감 (단위:명)



(7.1%)에 비해 2~3배 높은 수치다.

나주시 지역 건설업 생산액은 지난 2011년 42.6%던 뒤 2013년(54.3%)과 2014년(50.6%) 눈에 띄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 단계 들어간 지난 2015년 생산액이 전년보다 1.6% 감소한 뒤 2016년(-11.0%), 2017년(-14.7%), 2018년(-

42.3%) 등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부동산업은 모두 지난 2015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급성장했다.

지난 2015년 나주시 도소매업 생산액은 전년보다 29.9% 증가했다. 음식·숙박업은 무려 49.8% 뛰었고, 부동산업은 59.7% 증가했다.

이 같은 성장세에도 상가 공실이 확대되면서 부동산업 생산액은 지난 2017년(-5.5%)과 2018년(-7.5%) 2년 연속 감소 추세다. 음식·숙박업 생산액도 지난 2018년 17.9% 감소하면서 열악한 정주여건을 반영했다.

이 보고서는 인구 유입과 취업자 수 증가도 공공기관 이전 효과로 꼽았다.

나주시 인구는 지난 2014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4년 2920명 증가한 데 이어 이듬해는 7510명이 늘어났으며 혁신도시 조성 이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2015년은 전남 인구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증

가 전환한 해이기도 하다.

나주시 인구는 지난 2016년에도 6190명 증가하고 2017년 5730명, 2018년 3730명, 2019년 830명, 2020년 950명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김 과장은 "특히 나주시 지역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지난 2014년 25%에서 2018년 22%로 낮아지고 있다"며 "혁신도시 조성 이후 청년층 인구 유입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효과로 나주 취업자 수도 지난 2015년 이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나주 혁신도시 지정으로 인한 고용효과를 합성대조군 분석방법으로 추정해보니 2016년 4565명, 2017년 7680명, 2018년 8986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합평군을 제외한 무안, 영암, 화순 등 혁신도시 인근 지역에서도 2016년 이후 고용증대 효과가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신현구·2019)도 인용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력거래소, 전력계통운영시스템 전문워크숍



전력거래소는 최근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워크숍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강원도 평창군에서 열린 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와 함께 진행됐다.

워크숍은 EMS 기술발전·개선 사례 공유와 국내 EMS 관련기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소프트웨어 기술동향과 EMS 적용 가능성, 상태추정 기반 취죽감시 시스템, 과부하

해소 방안,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미래 예측)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의를 벌였다.

김완홍 전력거래소 정보기술처장은 "지난 2014년 10월 국내 기술 상용제품으로 개발된 EMS(차세대 EMS)가 7년 간 무고장 운전한 역사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신재생 확대 등 전력계통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EMS 분야 연구·기술개발 등에 대한 적극 도전하자"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KISA,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사이버보안 역량강화 교육 개설

중·고급과정 권역별 특강 진행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개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진흥원은 지난 2018년 사이버보안빅데이터센터를 개소해 AI·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침해사고 대응역량 강화 및 신학년 제품 개발 연구 지원을 하고 있다.

사이버보안 AI와 빅데이터 분석 및 이해(초급)·보안로그 및 머신러닝을 활용한 위협 탐지(중급)·빅데이터를 활용한 악성코드 분류 및 탐지(고급) 등 총 10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초급과정'에서는 온라인으로 AI·빅데이터 보안에 대한 이론 교육과 실습영상을 제공한다.

'중·고급과정'에서는 피싱 사이트, 악성코드, 보안로그 등 데이터셋을 활용한 오프라인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지역 인재를 위한 5개 권역별 특강이 별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빅데이터센터에서 보유한 피싱 사이트, 악성코드 등 다양한 보안 데이터셋을 활용하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데이터셋을 3종에서 5종으로, 개최 횟수를 12회에서 27회로 확대해 실시된다.

교육 신청은 AI·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이버보안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 예비창업자,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자세한 교육 내용 및 일정 등은 홈페이지(securitybigdat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여름 복숭아로 비타민 충전하세요"

광주지역 롯데마트 직원인 오씨는 28일까지 선보이는 우수농산물관리(GAP) 인증 복숭아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들 매장에서는 천도복숭아, 신비복숭아, 황도, 백도 등 다양한 품종의 복숭아를 만날 수 있다.

<롯데쇼핑 제공>

농어촌공사, 농촌재능나눔 참가자 모집

8월6일까지 접수

한국농어촌공사는 '2021년 농촌재능나눔 소규모 봉사단체 활동지원사업'에 참가자를 오는 8월6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어촌공사가 주관한다. 개인, 일반단체, 동아리, 가족 등 소규모 단체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스마일재능뱅크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활동 분야는 지역공동체 및 경제활성화, 주민전

강 및 복지증진, 생활환경 및 마을 환경개선, 주민 교육 및 문화증진 4개 분야 50여 개 세부 활동분야가 있다.

올해는 농촌재능나눔 관련 분야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15개 소규모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단체는 최대 500만원 경비를 지원받으며 8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한다.

지난 2012년부터 7000여 개의 마을에서 13만여 명의 봉사자들이 재능나눔을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도초도 섬 내 시세 9억

- ▶ 임야 29,455㎡(구 8910평), 전망 좋음
- ▶ 회사 정리 차원에서 그냥 드립니다.
- ▶ 대출 1억2천만원, 사채 1억, 승계 가능자

오피스텔 매매 임대

-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 8층, 계약 108㎡ 전용 67㎡
- ▶ 사무실 전용, 창가, 전망 좋음
- ▶ 매매 - 1억1000만원
- ▶ 임대 - 보 1000만원에 월 60만원

덕남동, 임야

-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 임야 661㎡, 지분매매
- ▶ 매매 - 6000만원

오피스텔 신축부지

- ▶ 신안동, 대지 582㎡(구 176평), 상업지역
- ▶ 지하 1상10층, 15평, 72개 허가특
- ▶ 법인 양도·양수 가능
- ▶ 분양/임대 100%될 장소
- ▶ 매매 - 협의

문의. 010-3605-5000